

‘유리지갑’ 월급쟁이 세 부담 더나 15년만에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

고물가 속 직장인들 ‘소리 없는 증세’ 불만... 당국, 이달까지 개편 방안 마무리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소리 없는 증세’라는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개편은 월급쟁이인 근로소득자에게는 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 면세자의 범위는 더 줄어들 것이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게는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리 없는 증세’의 문제를 보완해 보겠다는 취지다. 물가는 계속해 오르고 있으나,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들은 같은 급여를 받아도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1억5000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

그나마도 서민·중산층 이다수 포진하는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도 세율도 그대로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소득 세수를 보면 주로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런 증세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더 거뒀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배경이다.

정부는 과표·세율을 그대로 둔 가운데 물가가 오른 탓에 세금을 더 걷은 부분도 있지만, 과세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 세금이 늘어난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분X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분X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분X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1억 5,000만원 초과분X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 초과분X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60만원+5억원 초과분X42%
10억원 초과	3억 8,460만원+10억원 초과분X45%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연남뉴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되레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유선업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남뉴스

세열골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 최선”

‘홈택스 2.0’ 추진 주역·빅데이터 분석 활용 공정세정 구현도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윤영석(57·사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임명됐다.
10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11일자로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윤영석 청장은 함평 출신으로 서울 영일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회계학 석사를 마쳤으며 19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윤 신임 청장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근무에 이어 춘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



장, 부천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제청 차세대 기획과장·전산기획과장·법인세과장·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서울청 사무국장, 국제청 정보화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윤영석 신임 청장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민들의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홈택스2.0’을 적극 추진했을 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공정세정 구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기용 기자 pboxer@

3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부정적’

산업연구원, 국내 1000곳 조사... 내수·수출 등 전반적으로 하락

올해 3분기 제조업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 심리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산업연구원이 국내 10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자료를 보면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시황(95)과 매출(97) BSI가 모두 2분기보다 하락하면서 기준선인 100을 하회해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경기 개선 전망을,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경기 악화 전망을 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시황 전망치는 2분기 101에서 3분기 95로, 매출 전망치는 104에서 97로 각각 하락했다.

내수(96)와 수출(99) 전망치도 2분기(내수 103·수출 104)보다 하락해 100을 다시 밑돌았다.

설비투자(101)와 고용(103) 역시 2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전망 BSI를 유형별로 보면 신산업(106)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기준선을 하회했다. ICT부문(98)과 기계부문(98), 소재부문(93) 모두 2분기보다 전망치가 하락했다.

또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대형업체(103)는 매출 BSI가 2분기 연속 100을 웃돌았지만,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96)은 다시 기준

선 아래로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02)와 무선통신기기(110), 바이오·헬스(104)와 이차전지(112) 등을 제외한 디스플레이(84), 자동차(99), 일반기계(96), 정유(92) 등 대다수의 업종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2분기와 비교하면 가전과 조선, 이차전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매출 BS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스플레이(-21포인트)와 일반기계(-12포인트), 철강(-11포인트) 등 매출 전망 BSI 하락폭이 컸다.

다만 2분기 제조업 현황 BSI는 시황(90)과 매출(95)이 모두 1분기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94)와 수출(96)도 100을 밑돌았지만 1분기에 비해서는 상승했고, 설비투자(103)는 4개 분기만에 상승 전환됐다.

고용(100)은 기준선을 회복했고, 경상이익(85)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 매출 현황 BSI는 정유(106)와 바이오·헬스(102), 이차전지(106) 등이 100을 웃돌았고, 화학(100)과 철강(100) 등은 기준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스플레이 업종(64)은 전분기보다 크게 하락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1층에서 뵙겠습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오른쪽 네번째)은 2층에 위치했던 여수시청로지점을 인근 신축 건물 1층으로 최근 이전하고 고객 만족 향상을 다짐했다. 광주은행은 영업점 총 140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광주 지역 118개, 수도권에 22개 지점이 있다. <광주은행 제공>

금융 취약층 대출 부실 확대 막는다

고정금리로 전환·소상공인 저금리 전환 때 금리 연 7% 이하로 부실 차주 신용채무 최대 90% 원금 감면·특례보증상품 출시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층 대출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이르면 9월 하순부터 소상공인 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연 7%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

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해당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7%로 정했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며, 전환할 수 있는 한도는 5000만원 정도다. 이르면 오는 9월 하순 또는 늦어도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대출 지원 규모를 7조 5000억원에서 8조 5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런 조치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늘어나고 물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한계업종 중심의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3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 대출뿐만 아니라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상환 일정 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주고 최대

20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 또한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해 주기로 했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상황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금리 상승, 원자재 비용 등 경영 상황에 맞춰 특례 자금을 지원한다.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도 공급된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보증상품을 오는 10월에 신규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이 대출을 연체한 경우 추심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권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금리 배려 등 금융 지원과 자율 채무조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무보증 신용대출(새희망홀씨) 등 서민·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새희망홀씨의 올해 공급 목표는 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00억원을 늘려 잡았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계대출 소멸 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취약 및 연체 대출자의 생활 안정과 채기도 지원할 계획이다.

/연남뉴스



영·호남 벤처기업 3년만에 다시 만났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부산서 교류회 가져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한 동안 중단됐던 지역 간 벤처기업 교류회를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지난 8일 부산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에서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와 ‘영·호남벤처기업교류회’를 개최했다.

앞서 협회는 2018년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와 ‘달빛동맹 상생협력교류회’를 시작으로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며, 2019년 8월 매년 8월 제주도에서 열린 벤처기업 최대 행사 ‘제19회 벤처썸머포럼’을 여수에 유치하는 등 교류를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기업간의 협업 및 투자유치, 판로개척, 조인트벤처 추진 등 지역간 벤처기업·스타트업 교류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 2021년 8월에는 영·호남 조인트벤처 1호 ㈜포텐 츠글로벌 설립을 추진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다.

부산 열린 ‘영·호남벤처기업교류회’는 3년 만

에 개최되는 ‘제20회 벤처썸머포럼’ 및 ‘영·호남 벤처기업매칭데이’ 사전 답사와 함께 광주전남 벤처협회 워크숍도 동시에 진행됐다.

부산지회 회장사인 ㈜전진엔텍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광주지역 대표 IT기업으로 꼽히는 ㈜비논시노베이션 김용수 대표가 ‘지역 AI 및 클라우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또 벤처기업협회부산지회와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벤처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아이디어 및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 지원체계 구축 ▲기술교류, 정보교환, 판로모색, 사업 아이디어 도출 및 투자 활성화 ▲지역 벤처 기업인들을 위한 사업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혁신 선도벤처기업 발굴 및 마케팅 플랫폼 제공을 통한 우수벤처기업 견인 등이다.

부산 열린 ‘영·호남벤처기업교류회’는 3년 만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